

도교육청,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추진

도내 사립유치원 160곳 중 21곳 등록... 15일까지 연장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사립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란 유치원 입학에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

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

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한 유아우선 모집에 참여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은 전체 160곳 중 21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13.1%에 불과해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이 10월 말로 종료됐지만 오는 15일까지 연

장해 사립유치원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님에게 편리한 입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행복 위한 치유적 환경 조성 모색한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내일부터 이틀간 국제학술대회 열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마음인문학연구소는 내일부터 9일까지 교내 프라운관에서 '마음공부의 장: 마음에서 환경까지(The Places of Mind Practice: From Mind to Environment)'를 주제로 제9회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국, 중국, 일본, 태국 등에서 초청된 국내외 석학들이 마음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물질적 삶의 조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음공부와 인간 행복을 위한

치유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외 연구자들과 시민, 학생들이 마음인문학의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에 걸쳐 총 10개의 주제가 발표되는 가운데 내일은 '마음 쟁김의 장소들-치유환경의 심리학과 디자인'(니콜 포터, 영국 노팅엄대학교), '마음과 환경,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장진영, 마음인문학연구소), '사랑,

순결, 그리고 겸손: 영원 철학의 영성관'(왕쯔닝, 중국 칭화대), '영·기·질과 마음공부의 관계'(박성호, 마음인문학연구소)가 발표된다.

이어 9일은 '핵심감정과 임상 증상'(강형원, 원광대 한의과대학), '마음의 성장 그리고 진화'(유수양, 일본 유멘탈클리닉 M&L심리치료연구소), '명상적 걷기와 환경의 치유: 땅과의 만남'(조성훈, 마음인문학연구소), '포도털링을 활용한 마음치유'(손시은, 마음인문학연구소), '몸 아련의 전인교육: 가치 지향 교과과정'(수나 치바프록, 태국 롱아투스쿨), 'AI-A 환경에서의 XR을 활용한 마음공부'(이정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각각 발표된다.

고시용 소장은 "오늘날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전과 달라진 삶의 환경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배경에서 마음에 관한 전통적 이론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환경 변화를 따져본 후 적합한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술대회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주최 및 주관하는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 지원을 받아 연구활동과 편찬 사업, 시민 강좌 등 마음인문학 연구토대 구축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소통연수·체육행사 펼쳐

교육 활성화·전문성 함양 기대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 35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 소통연수 및 한마당 체육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운영위원장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회현초등학교 김유정 위원장과 군산중학교 정정애 위원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호원대학교 윤진주 교수가 '운영위원의 역할 및 합리적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연수로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간의 사소통을 강화해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소통연수와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학교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인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유학박람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우크라이나 주요 대학과 교육협력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인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유학박람회를 개최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우크라이나 타라 세브첸코 국립대학교에서 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전북대 컨소시엄은 100여명이 예선을 거쳐 초급 15명, 중급 16명, 고급 7명 등이 본선에 올라 치

열한 경쟁을 펼치며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초급 우승은 키예프 국립외대 한국어과 2학년 헤레비치 볼라다 학생이 수상했으며, 중급은 세브첸코 국립대 한국어과 3학년 키릴로 빅토리아 학생이 수상했고 대망의 고급 우승자는 세브첸코 국립대 한국어과 4학년 학생이 소시나 엘리자베타 학생이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들은 한국교육원으로부터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받았으나 전

북지역 4개교로부터 한국어학당 연구권 등을 지원받았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북방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과 사립대간 협력강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와 한국학생의 신규 지역 해외진출을 강화하여 글로벌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특화된 새로운 취업 일자리 창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가 6일 대학본관에서 LH 전북지역본부와 '일자리 확산과 주거복지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일자리 확산 위해 '맞손'

전주대-LH전북지역본부 상호협력 협약

전주대는 6일 대학본관에서 LH 전북지역본부와 '일자리 확산과 주거복지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이호인 총장과 학생취업처 박균철 처장, LH전북지역본부 임정수 본부장, 주거복지사업단 이창희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수행 △ 청년매입 임대주택 등 학생 주거복지 안정화 사업 △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이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LH 전북지

역본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며 "LH 전북지역본부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북 지역 청년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복지를 향상하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 임정수 본부장은 "지역 내 창업 선도대학으로의 위상을 수 년째 이어오고 있는 기독교 명문사학 전주대와 협약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LH의 다양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LH의 노력이 전주대학교와 함께하여 더 큰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동물산업 육성에 중요한 기반 다져"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청인바이오텍 연구 협약 인삼 유용 자원 활용 식의약소재 개발·효능 검증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이 담수경 인삼 재배 기업인 청인바이오텍(주)과 유용 자원 활용 식의약소재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연구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은 유용소재의 실제 효능 검증과 이를 유용미생물과 연계한 새로운 동물약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인바이오텍(주)은 담수경 재배 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한 인삼을 판매함으로써 세계적인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러 검증기관을 통해 인삼의 유효성분과 무농약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장은성기자

담수경 재배는 첨단기술에 의해 물에서만 키우는 재배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재배된 인삼은 뿌리, 줄기, 잎, 열매에서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노지재배 인삼보다 사포닌이 6~10배 함유되어 있어 인삼 고유의 진향 향과 맛을 느낄 수 있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속가능한 동물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인바이오텍(주)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